"농민들 절박한 심정 외면 말아달라"

쌀 주산지 전국 8개 시·도지사, 7일 국회서 쌀값대책 촉구 성명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의무화·쌀 10만t 시장격리 등 대책 요구

"농민들의 절박한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국내 쌀 주요 생산지인 전국 8개 시·도지사가 한데 모여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호소문을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수확을 앞두고 폭락하는 쌀값으로 기껏 구슬땀을 흘리며 키워온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 걱정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경기, 강원, 전북, 경남·북, 충남·북 등 전국 8개 도지사는 오는 7일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쌀값 폭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풍성한 한가위는커녕, 더 이상 농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쌀 생산 농가의 절박감을 모른 척 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국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대정부 호소문을 내는 이유다.

앞서, 이들 지사들은 최근 열린 제 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한 바 있다. .

전국 도지사들은 오는 7일 발표할 성명을 통해 ▲쌀 10만 t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생산비와 인건비는 끝없이 올라 생존을 위협받는 쌀 생산 농가들의 위기감을 고려,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수급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체감하는 쌀값 하락세는 훨씬 심각하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출하된 햅쌀(조생종) 가격은 20kg 기준 4만3000원~4만5000원(도매가격) 선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출하된 햅쌀(5만6000원~5만8000원)보다 23.2%(1만3000원)나 떨어졌다.

재고쌀과 수요 감소로 인해 떨어진 쌀값이 햅쌀 가격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올해 초부터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43만 t (7월 말 기준)이 넘는 재고 쌀을 방치할 경우 햅쌀 가격도 폭락할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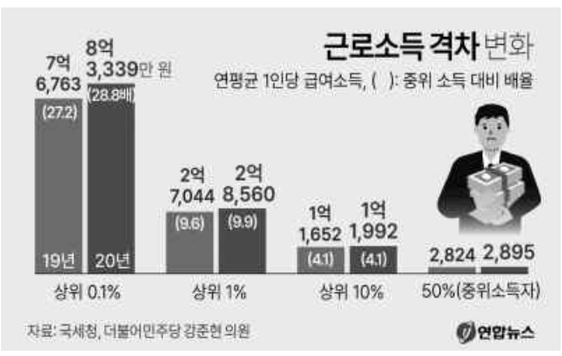
통상 '추석 상차림용'으로 출하되는 조생종 햅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적어 추석 이후 수확해 내놓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전년도 추석 이후 수확한 중만생종 햅쌀(20kg) 평균 가격은 5만3534원. 같은 해 조생종 햅쌀 가격(5만6000원~5만8000원)보다 낮았다.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량도 7월 말 기준으로 43만 t 에 달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쌀 재고량(전국 23만7000 t)보다 80.6%가 많다. 전남은 더하다. 전년도 7월(3만5000 t)보다 무려 191.4%가 많은 10만 t 이 남아있다. 묵은 쌀이 많은데, 지역 농협이 전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올해 중만생종 햅쌀을 사들일 리도 만무하다.

이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조생종 햅쌀 판매가격 하락부터 추석 이후 수확하는 중만생종 농협 수매가 하락, 중만생종 햅쌀 판매가격 하락 등 폭락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공포감도 엄습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상위 0.1% 근로소득 8.3억, 중위소득 28.8배

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세청 2020년 근로소득 자료 분석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전체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中位) 소득자의 28.8배에 달하며 갈수록 두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8억33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위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 2895만원의 28.8배에 달한다. 1년 전인 2019년 기준 27.2배에서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2019년 당시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7억6763만원으로 1년 새 6576만원(8.6%) 늘었지만, 중위 소득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2824만원으로 71만원(2.5%) 느는 데 그쳤다. 상위 1%를 기준으로 삼아도 중위 소득자 대비 2019년 9.6배(2억744만원)에서 2020년 9.9배(2억8560만원)로 연 근로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은 2019년 1억1652만원에서 2020년 1억1992만원으로 340만원(2.9%)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 소득은 2019년 3743만원에서 2020년 3828만원으로 85만원(2.3%) 늘었다.

하위 20%의 경우 2019년 622만원에서 2020년 614만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강준현 의원은 "최상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동량·대인 접촉 급증에 재유행 우려

모임 제한 없고 버스 전좌석 운영
전국 9개 휴게소서 무료 검사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된 뒤 맞은 첫 휴일인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입국 뒤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안내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 연휴를 맞아 이동량과 대인 접촉 급증 등에 따른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2일 추석 연휴 방역 대응을 설명하며 점검과 계도, 홍보를 강조했다.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을 추진하되 감염 통제보다는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 수칙 준수 및 외국인 밀집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점검 및 계도·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통제'보다는 '점검·계도·홍보'에 방점을 두는 기존 대책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전국 9개 휴게소 임시 검사소에서 대상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보건소는 연휴에 한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도 148곳 운영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이 아닌 접촉 면회가 중단된다.

정부는 반면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입국 전 진단검사 해제 조치를 내렸다. 지난 3일 0시 이후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했다.

여행·항공 업계 등은 반기고 있지만, 이 조치로 인해 해외 확진자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또 이번 연휴에 재개된 고속도로 휴게소 통행료 면제 조치도 국내 이동량을 큰 폭으로 늘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 간 방문이나 모임 제한은 없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 열차 등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정부 역시 추석 연휴 확진자 수 등 방역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통·화합의 장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8개국 75명 참가…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 주제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를 초청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2022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18개국 정치, 경제, 법률, 예술, 시민단체(NGO)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리더 65명과 국내 청년 10명이 참여했다.

2020년 포브스지가 '주목해야 할 30세 이하 인물 30'에 선정한 재미동포 애나 김 리 라이오네스 스마트 공동설립자, 송종혁 호주 연방 검찰청 검사, 드라마 '파친코'에서 '모자수' 역을 맡은 재일동포 3세 연극·영화 배우 박소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첼리스트 겸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텐 일리아 등이다.

뉴질랜드 유일의 한인 피부과전문의 김예나 박사, 한국 문학번역 신인상을 받은 프랑스 변호사 노승혜, 한식을 접목한 디저트로 주목받는 프랑스 파티시에 이소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무술·문화·무용을 알리는 동포 3세 김유리, 스코틀랜드 출신의 잉글랜드 의사 김승철 등도 고국을 찾았다.

이날 개회식은 전 유엔 대사인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의식과 한국 청년'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주제 영상 상영, 환영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2일 차인 5일에는 쿠바 한인 후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전후석 감독이 진행하고, 배우 박소희와 작가 송애나, 이규창 키노33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여하는 공감 콘서트가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경기,수도권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중 꼭! 받아야할 돈 회수 앙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용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일 시 : 2022. 9. 1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 시 : 2022. 9. 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회사분할 및 건설업양도양수공고

주식회사 무등주택개발(구, 주식회사 무등하우징)은 2022년 9월 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부문(실내건축공사업)을 상법 제 530조의 9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가칭) 무등하우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배정은 인적분할 방식) 이에 따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 승계방식으로 신설법인에 승계하고 존속한다. 건설업 양도(포괄)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양도대상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나주 2014-01-02)
1. 양도예정일 : 2022년 10월 6일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1) 기간: 2022년 9월 6일 ~ 2022년 10월 5일
(2) 제출처: 주식회사 무등주택개발 (구, 주식회사 무등하우징)
1. 양도자: **주식회사 무등주택개발 (구, 주식회사 무등하우징)**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2로9번길 3-7, 103호 (금호동)
대표이사 김 광 태
1. 양수자: **(가칭) 무등하우징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2로9번길 3-7, 102호 (금호동)
대표이사 김 광 태

2022년 9월 5일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9월 2일 서면결의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50,000,000원 중 금 49,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1,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행주식 총수 10,000주중 9,800주를 희망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금5,000원에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2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 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주식회사 진강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3번길 25-7, 402호 (양산동)
대표자 사내이사 박 정 숙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본 회사는 2022년 8월 1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2022년 8월 1일자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2022년 10월 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9월 5일

주식회사 스마일메디텍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15, 상가동 104호
(흑석동, 수완2단지 중흥에스-클래스)
청산인 정 경 자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 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분할 및 건설업양도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동양건설산업주식회사("갑")는 2022년 8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중 임대사업부를 제외한 건설업사업부, 주택사업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분할하여 주식회사동양건설 ("을", 가칭)을 설립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18조 및 시행규칙 1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게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양도)대상 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890)
분할(양도)대상 주택건설업 : 전남-주택 2005-0005
분할(양도)대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제2012-1호
2. 양도예정일자 : 2022년 10월 06일
3. 분할회사내역
"갑" (양도자) **동양건설산업주식회사**
(tel : 061-743-6000)
전남 순천시 장천2길 20
대표이사 임 병 진
"을" (양수자) **주식회사 동양건설 (가칭)**
(tel : 061-743-6000)
전남 순천시 장천2길 20
대표이사 임 병 진

2022년 9월 5일

분 실 공 고

- 공급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원 무등산 자이 & 어울림 112동 1103호
- 계약자 : 권일순, 진미현, 진선미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9월 5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